



천주교 전주교구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남 종 기 고 스 마
 보좌신부: 김 건 솔 프 란 치 스 코
 수녀: 강 도 순 레 지 나
 수녀: 최 윤 희 글 라 라
 사목회장: 장 은 수 요 한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8644-6007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 오후 6시(학생미사)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6월 복음화 지향
	·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포용과 신의와 인내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르코 4,41)



△ 그림: www.evangelium-in-leichter-sprache.de

◎제1독서: 욥 기 38, 1.8-11

◎제2독서: 코린토 2서 5, 14-17

◎복음: 마르코 4, 35-41

◎화답송: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두려운 인간”

사랑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변곡점 앞에서 두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수동적인 인간으로 바뀌게 합니다. 이를 테면,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고대시대부터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시대까지 두려움은 인간 삶의 멍에와 같이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 삶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할까요?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풍량이 불어 죽을 위험에 처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배 위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서는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며 상황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은 눈앞에서 생명이신 하느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그들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믿음과 연관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하느님에게서 태어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 그분으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경외심만 남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멈춰버린 인간은 어쩌면 죽은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도 어쩌면 일상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곧 생명이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한 희망의 몸부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문학: 삶의 지혜를 전해 주는 성경의 책들 ②(지혜문학의 3단계)

구약 성경의 지혜문학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고전적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잠언’입니다. 위에서 말한 지혜문학의 특징이 여기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잠언의 출발점은 인간 이성입니다. 주로 세상을 관찰하며 터득한 이치를 표현한 짧은 가르침들을 모아 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살면서 경험해 보니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더라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세의 인과응보**입니다.

하지만 **둘째 단계는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와 코헬렛’ 이 이 단계에 속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듯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값음이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발생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에 부딪히고, 인간은 그 한계를 붙잡고 고민한 끝에 결국 그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셋째 단계에서는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집회서와 지혜서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들에서는 인간의 머리로 찾아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이 알려 주시는 지혜를 배우는 것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스스로 한계를 인정했을 때, 하느님의 계시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내가 알아내지 못하는 지혜를 하느님께서 알려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과거에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이 이 셋째 단계의 깨우침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의 삶과 자연의 질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지혜문학들을 읽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처세술이 아닌 하느님을 찾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잠언 1,7)이라 말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잡을 때, 지혜는 내 삶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행사 이모 저모



▲ 본당 경내 배수로, 장마대비 슬러지 제거작업 및 청소 (feat. 주임신부님: 좌측사진 맨앞)



▲ 첫 영성체반 교제 수여식(6/5/토)

▲ 첫 영성체반 교리시작: 3가정 세 어린이 (6/12/토)
(어린이 교육과 부모 교육이 별도로 진행)

송철 옛날국수공장	일송정 (갈비명가)	최복순쌀상회	전주 농약사	하늘해외여행사
3대를 이어온 국수명가 송현귀(요한) 최금호(요안나)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 137-5(남부시장 건너편) ☎284-1908 H.P. 010-8951-2208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비전골 영품한우전문 김문식(베드로) 심 데레사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쌀, 잡곡, 소금일절 김동주(바오로) 장현숙(세레나)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농약, 종자, 모종, 농자재, 묘목 황인수(요한) 김효순(루치아) 전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287-4900 H.P. 010-8239-4348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최석재(스테파노) ☎286-9595

동래분식	남문&mail. 남문문구센터	MG남부새마을금고	(유) 쿡뱅크	풍남정
새알팔죽, 팔갈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전통, 30년차몰집 양명구(다비드) 이정미(세실리아) ☎288-4607 H.P. 010-3672-0186	문구문화, 문구중심, 문구생활 원수관(야고버) 심경이(마리아) 전주시 보건소 옆 ☎283-3352	본점(남부시장) ☎283-7611-3 학산지점(평화동) ☎283-7614-5 홍산로지점(효자동) ☎286-7616-7 이사장 이경춘(마르첼리노) H.P. 010-3659-1907	그릇대여업체 장순문(프란치스코) e-mail: jsm1605@naver.com H.P. 010-7657-1606 ☎284-1606	전주전통비빔밥 불낙전골, 떡갈비 전문점 박래연, 이현숙 전동성당 후문 H.P. 010-3680-2756 ☎282-8754

전 동 계 시 판

● 오늘은 사제양성 후원회비 납부의 날입니다.

■ 사목회: 6/20(주일)교중미사 후, 윤지총 홀

■ 예비신자 연중 모집: 예비신자 모집에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일정 인원이 모이면, 주일 오전9시 교리반을 시작합니다.

■ 주임신부님, 수녀원 피정지도: 6/22(화)~7/2(금)

*이 기간 본당 미사는 변동없이 진행됩니다.

■ 차주에는 교황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제단체 및 각 가정 단체사진》 제출 협조 요청

코로나19로 인해 회합 및 신부님의 가정방문이 제한되어, 사목상 교우여러분의 사진을 제공받고자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 주임신부님 사목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방 법: 핸드폰으로 사진촬영 후, 이름과 사진을 사무장 번호로 전송 (010-2670-3129)

가난한 나라를 위한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1.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성금을 내시면 되고, 비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계좌입금: 전북은행 1013-01-3079726 천주교유지재단
2. 형편에 따라 성금 액수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원입니다.
3. ‘백신 나눔 운동’ 참여 기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7일(대림 제 1 주일 전날)까지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6월 17일(목)~6월 25일(금)]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매일미사 191면)

<9일 기도 지향>

- 19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하여
- 20일: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21일: 남과 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 22일: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 23일: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 24일: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 25일: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첫순교터 후원회원(6월18일 현재)	587 명
후원회원 목 표	10,000 명

우리들의 정성(6월7일~6월13일)

주일헌금: 3,794,000	교무금: 5,005,000
감사헌금	김진희(수산나) 200,000
	서분석(골롬바) 100,000
	김덕순(로 사) 30,000
	차정수(마리아) 50,000
	故노실근(율리아) 100,000
	이점욱(데레사) 130,000
	박월자(실비아) 100,000
	익 명 100,000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월 1만원이상 납부)
	<input type="checkbox"/> 특별평생회원(일시불 100만원 이상 납부)
√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사무실)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CMS 후원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 (재)천주교유지재단)

정창희 정형외과	수진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Roastery cafe Soul & Design Soul	남 창 당 한 약 방
뼈, 관절 물리치료실 의학박사 전문의 정창희(안셀모) 이성숙(안젤라) 전동성당 건너편 ☎284-2926, 288-1625	약사 이현명(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우아) 중앙성당 인근 (구한양예식장) ☎272-8066	주·야간보호,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삼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디자인과 커피가 공존하는 Soul 서승희(클레멘시아) 조성취(안 드 레 아) 진버들6길8-10(아중리) H.P. 010-2747-0989 H.P. 010-3683-0050	전통한약방 제1호 인증 원장 한광수 전동성당 맞은편 한옥마을 입구 H.P. 010-3653-8586 ☎284-8586